

□□□□ □□□ □□ □□□ □ : □□□ □ □□□□
□□ □□□□□□ □□

<□□ □□-□□□ □□ 1>

□□□□□□3.0□ 2020□ 9□□□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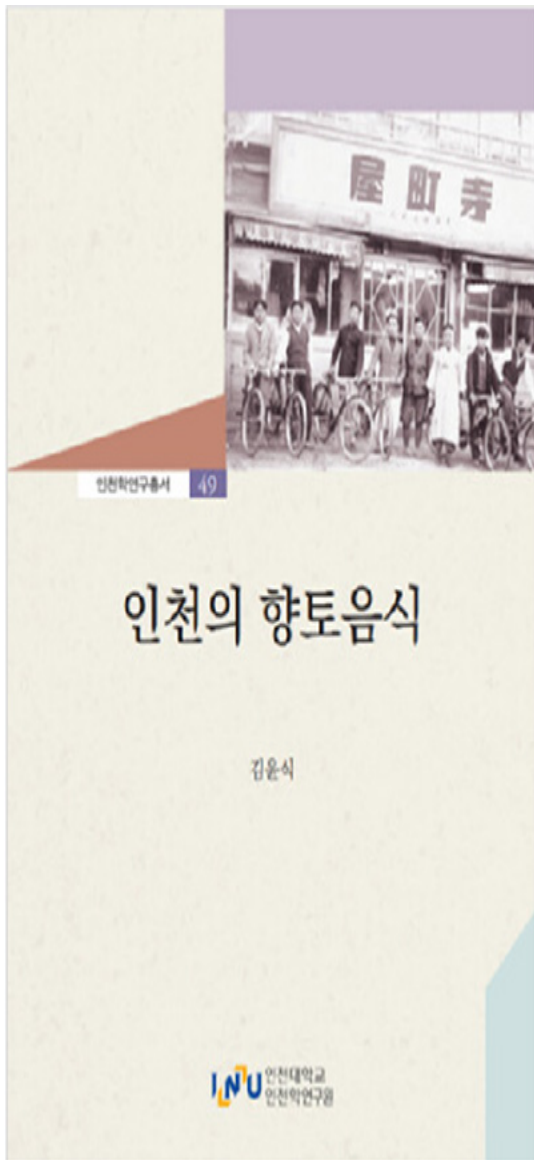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7□ □□□□□□□□ □□□□□ , □□□□ □□□□□ □ 4□□ □□□ □□□□ . □□□□□□



김운식, 인천의 향토음식 (인천학연구총서 49, 2021)

인천의 향토음식이란 무엇인가? 인천의 향토음식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인천의 향토음식은 인천의 특색 있는 맛과 멋을 담고 있으며, 인천의 전통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의 향토음식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인천의 향토음식은 인천의 특색 있는 맛과 멋을 담고 있으며, 인천의 전통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의 향토음식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인천의 향토음식은 인천의 특색 있는 맛과 멋을 담고 있으며, 인천의 전통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의 향토음식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인천의 향토음식은 인천의 특색 있는 맛과 멋을 담고 있으며, 인천의 전통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의 향토음식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